

군 입대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 군(경찰,공익)
입대 아들을 위한
기도 모임에 기쁜
마음으로 오게 하
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시
고 만물을 주관하
시는 주님!
이 순간까지 주님
이 동행하셨기에

지금의 삶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삶의 큰 빛으로 삼고 늘 새사람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여기에 모인 저희 아들들 조국 분단이 가져온 비극적인 현실로 인하여 20대 좋은 시절에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철부지로 때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이 같은 아들이오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각자 소속된 곳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의 소중한 보석 같은 아들들을 주

님께 바칩니다. 그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총명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바르게 판단하고 해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껏 보다 더 마음이 단단하고 견고해 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선에 대한 갈망과 올바른 판단력으로 각기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선임과 후임을 감싸 안아서 통제된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군 생활 속에서 때로는 힘들지라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치 앞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입니다.

부모 된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훈련할 때, 행군할 때, 잠들 때나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의 손길이 닿을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몸을 잘 관리하고 폐쇄된 공간 일지라도 오고가는 길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정말 어려운 난관이 올지라도 항상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

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역 의무를 무사히 마치고 제대하는 날까지 털끝 하나라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_아멘_

〈이윤주 집사〉

* 군,경 선교팀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시 5층 찬양연습실에서 아들들을 위한 기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군, 경선교를 담당하는 조정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파 및 군(경찰, 공익포함)에 입대한 아들들 개개인에 대한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군에 아들들을 보내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습니다.

함글함울의 기사를 모읍니다.

문의 : 하태원 편집장 T.019.313.3073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세계 속에 정신의 딸들이 되기를 _장학금 전달식을 마치고



주님의교회 장학위원회는 2010년도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2학기에도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30명, 탈북 대학생 2명, 솔리스트 3명 등 전체 65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중 정신여고 성적 우수 장학생 13명에게 장학금 및 장학증서 전달식을 9월 28일

(화) 4층 회의실에서 박원호 담임목사, 박혜성 목사, 김한중 장로가 참석하여 전달하였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장학금을 받는다는 긍지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라 하며 학생들의 맑은 얼굴빛과 눈빛을 오래 기억하고 오래오래 보석으로 남아있을 것 같다” 말했다.

특히 목사님은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세계 속에 정신의 딸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았다. 이로써 2010년도 본 교회에서 계획했던 장학 사업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011년에도 더욱 알차고 내용있는 장학사업을 위해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렸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장학 사업을 무사히 마친 것을 감사드리며, 이를 위해 도와주신 장학위원님들과 간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재현 안수집사〉

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 연합교사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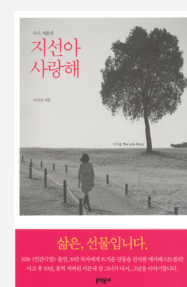
지난 9월 26일(주일),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2010년 하반기 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 연합교사대학이 대에 배실에서 진행되었다. '미래세대와 함께 가는 교사'라는 주제 아래 어린이소위원회와 청소년소위원회에 속한 모든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찬양과 기도회를 시작으로 '주님의교회 교육목회 계획'에 대한 박원호 담임 목사의 특강이 이어졌고, 그 후에는 각 위원회별 특강시간으로 진행되었는데, 어린이소위원회는 문재진 목사(거룩한빛 광성교

2010년 하반기
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
연합교사대학

주최 : 주님의교회 교육목회 연합회
일시 : 2010년 9월 26일(주일) 3시 - 7시30분

연합교목회		청소년소위원회	
3:00 - 3:20	찬양 및 기도회	3:00 - 3:20	찬양 및 기도회
3:20 - 4:20	박원호 담임목사(주) 주님의교회 교육목회 연합회	3:20 - 4:20	박원호 담임목사(주) 주님의교회 교육목회 연합회
소위원회별 교육		소위원회별 교육	
4:30 - 5:10	(어린이소위원회) 강사 : 문재진 목사 주제 : 미래세대와 함께 가는 교사	4:30 - 5:10	(청소년소위원회) 강사 : 박주호 목사 주제 : 성경을 배워 가르침으로 십재를 변화시키지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5:10 - 6:30	자녀서신	5:10 - 6:30	자녀서신
6:30 - 7:30	자녀서신	6:30 - 7:30	자녀서신

회)가 '드림메이트 교사'라는 주제로, 청소년소위원회는 박주호 목사(성서유니온총무, 유스코스타 강사)가 '성경을 배워 가르침으로 십재를 변화시키지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청소년소위원회는 특강 후, 각 부서 교사의 주제발표(좋은교사 프로젝트)시간을 통해 주님의교회 청소년 사역현장 속 교사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봄으로써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교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목사님께서 몇 주 전 주일예배 설교시간에 언급하셨던 책, 이지선자매의 <지선아 사랑해>입니다. 2000년 23살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55%에 3도 중화상을 입고,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치료의 시간

과 30번이 넘는 고통스런 수술과정을 겪었던,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천 배 만 배나 힘들었다던 지선자매의 이야기입니다. 2003년에 나온 <지선아 사랑해>와 2005년에 발간된 <오늘도 행복합니다>의 개정합본판인 이 책은 이전 책들의 내용에 사고 후 10년이 지난 그의 나이 서른셋에 새로이 보이는 이야기들을 덧붙여 낸 것입니다. 사고와 투병기간 중 이 고난의 사건을 이해 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과 가해자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분에 대한 믿음과 감사를 선택했던 그녀는 1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과 회복과 행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당한 사고는 분명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새로운 삶을 통해 진정 소중하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있다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의 시간들을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극복하게 된 그녀는,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돕고자 미국에서 재활상담을 공부하고 사회복지까지 그 지경을 넓혀 새로운 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선자매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도 같았던 고난의 시간들을 치열하게 지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깨우쳐주신 보물과도 같은 삶의 비밀들이 이 책 안에 가득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마운 책 <지선아 사랑해>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분들께도 드려도 참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박윤정 기자〉

|오늘의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_ 창세기 5 : 24

통 권 _ 제 271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0년 10월 3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을



가을이라 외로워진 것입니까? 외로워서 가을이 된 것입니까? 여전히 잘 모르겠지만, 가을은 유독 외로움을 자극하는 계절입니다. 사람들은 이 외로움에 누군가를 찾아 나서고 하고, 또 옛 추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연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반면 이별도 많다고 합니다. 함께 있어도 여전히 외로운 가슴이 몸부림치다 이별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새로운 만남을 거듭해도 우리의 외로운 가슴을 다 채우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는 만남일지 모르지만 영원으로 이어지는 만남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결국 누군가의 가슴에 아픈 이별의 상처를 남겨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아픈 이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죽보를 살펴보면, 아담의 자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면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합니다.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러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표현이 나타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죽었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낳았더라.’라는 말은 있지만 죽었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번역해 드리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세상에 없었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이다.”입니다.

어느 아이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에녹과 하나님은 종종 함께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은 평소보다 좀 더 멀리 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피곤치 않나? 내 집에 가서 쉬자.”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죽음이 에녹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가슴 시린 상처를 남기는 ‘죽음의 이별’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늘 새로운 만남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외로운 가슴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영원으로 이어지는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홀로 살지 못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외로움을 홀로 이겨내려고 한다던가, 바쁜 일상을 통해 그 외로움을 잊어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홀로 남겨진 근본적인 외로움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로움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걷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가을, 당신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 가을의 외로움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가을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외로움은 축복이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목사 박 원 호

로 템 나 무



| 씨앗 과 열매 |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126:5)

나는 펄펄 살아있으면서
열매만 거두려고 하였다.

잘 썩어진 씨앗만이
열매가 되는 것인데.

나는 지금 잘 썩어지고 있는가.
성급하게 열매만 바라고 있었다.

씨앗이 죽고 난 자리에서
열매는 자라난다.

그런데 열매만 따려고 했다.
내가 죽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서.

온전히 썩고 썩어져야만 한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님!
제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아멘.

〈엄혜숙 기자〉

추수감사절 쌀 나눔행사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에 서로의 따스함과, 투명하게 이어있는 예쁜 무지개빛 마음의 끈을 이어갑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겨울을 나실 분들과 기관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보내기 위한 쌀나눔 행사를 합니다.

* 참여방법 : 현물(쌀), 현금

* 접 수 : 10.3(주일) ~ 10.17 까지

* 문 의 : 김동익 안수집사 (010-5382-4769)



가을학기 양육과정

2면

20플러스 소개

3면

어머니의 기도 / 장학금 전달식 / 연합교사대학

4면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영혼을 살찌우는 가을학기 양육과정

이번 가을은 서울의 하늘이 더 맑고 높게 느껴집니다. 높고 푸른 하늘만큼이나 우리의 영혼도 말씀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가는 가을입니다. 가을학기 양육과정이 개강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교역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번 소그룹으로 밀접하게 교류하며 하나님 말씀의 깊은 맛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양육과정은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적용으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영성훈련과 말씀의 생활화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은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양육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아울러 양육은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가을학기에 총 14개 강좌에 총 268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에 성도님들의 마음엔 벌써 기쁨의 단풍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생의 여정에 주님과 동행하는 양육과정에 참여해보는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양육사업팀장 김영림>



청년기의 과제 “진로와 결혼”을 기도로 준비하는 20플러스

■많은 젊은이들이 청소년기는 천사처럼 주일을 성수하며 여호와의 경외하다가, 청년기에 이르면 세상적 관심에 믿음생활에 게으름을 피우기도 한다. 여기에 모인 본교회 청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하고 있다. 그들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는 하나님이 기뻐 흥분하실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본교회 청년부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 소개 목적이 본 교회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배려와 사랑이 필요함을 역설하기 위함이고, 이들이 본교회의 미래 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함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작년까지 청년부는 20대와 30대가 함께 뭉쳐진 20년차(20살-40살)부서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20년이라는 세대차를 십년 단위로 분리하여 20플러스 30플러스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20대 30대 청년들이 분리 정착되는 원년인 셈입니다. 20플러스 입장에서 30대 선배들이 빠져나가면서 공동체와 사역팀에서 20대 후반이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한해되고 있습니다. 주일예배는 중예배실에서 1시30분에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청년새벽기도회가 매일아침 6시30분 소예배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후에 제공되는 식사도 이름없이 빛도없이 수고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에 의해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공평되고 있습니다 지면을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조직으로는 20플러스 전체를 공광승 목사가 담당하며 청년1부(25살이하)서재욱전도사가 청년2부(30살이하)는 방정훈전도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조직으로는 신정웅 장로님이 젊은이공동체 담당장로로, 지원부장으로 정종국 집사님, 청년1부장 이승일 집사님과 청년2부장 손영익 집사님 청년1부 박지원지도권사 청년2부 노봉옥지도권사 그리고 해외선교팀에 변춘섭간사님과 새벽이슬 찬양팀에 박창준 간사님이 수고하고 있으며 청년 행정팀장 정지원 형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기는 대입수능에 묶여있는 고등학생보다 가정과 직장에 매여있는 30대보다 20대인생 활동영역이 다 큰세대에 비해 폭넓고 다양합니다. 예를들면 대학생, 재수 삼수생, 편입준비생및 반수생, 공익근무 포함한 군복무자, 석사 박사 대학원생, 어학연수및 유학생, 취업준비생, 취업 후 직장생활 적응자, 이직 고려자, 졸업및 실직후 무직상태자, 연애중인자, 연애중 실연고민자, 임신 중인자, 결혼예비 커플, 신혼부부 등등 입니다. 이렇듯 20대의 발달과정에 따른 다양한 욕구와 고민을 터치함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고 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

여름 농촌봉사활동은 5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남해에 위치해 있는 3곳의 사역지(거제, 통영, 여수)에서 7월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3곳의 사역지 각각의 성격에 맞는 맞춤형 사역을 준비하였는데 거제에서는 어린이성경학교, 통영에서는 동네외벽 페인트

칠사역, 어르신분들 발 마사지 여수에서는 애양원 시설의 도배 및 한센병 환자마을 청소사역을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각각의 사역지에서 2박3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날에는 여수 애양원에 모여서 함께 각 사역지의 피드백을 한 뒤 한국 기독교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는 애양원을 둘러보고 견학 할수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올해 농촌봉사활동은 3곳의 사역지를 섬기게 되어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려가 있었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덕분에 주님의 축복안에서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청년기의 가장 큰 기도제목은 취업을 향한 진로입니다.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의 시대를 맞아 주님의교회 청년부에서는 2009년에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비전교육원과 연대하여 청년취업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교회 13명이 참가하여 5층세미나실과 상담실에서 한달간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로 성격검사와 진로탐색검사, 직업지도프로그램, 이력서작성법, 면접을위한 태도및 외모복장관리법, 2단계로 직업훈련및 체험을통한 인턴십, 3단계로 취업알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를 마친 청년들에게 30만원 수당이 노동부로부터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장년부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20플러스 청년의 진로설계 및 취업준비를 위한 상담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부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향후 진로상담봉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합니다.

전공에 따라 진로상담분야를 나누고 해당 분야별로 우리 교회 등록교인 중에서 상담봉사를 하고자 하는 전문인력의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관심있으신 분들은 문의바람) 위원회에는 지난 5월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20플러스 청년의 상담수요가 많은 분야의 전문인력을 모시되, 같은 분야에서도 다양한 전문기와 상담을 원하므로 가급적 많은 봉사위원을 모시도록 할 것입니다.

여름비전트립이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김덕규 선교사님의 사역지 빈롱지역에서 8월5일부터 11일까지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집짓기 3채사역이 이루어졌다. 평생 집다운 집을 가져보지 못한 이들에게 함석지붕이 있고 바나나 잎으로 만드는 외벽을 가진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사역은 감동 그 자체였다. 참가한 청년들도 다 지어진 집을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베트남 현지 주인들을 따라 괜히 눈물이 글썽이기도 했다. 비전트립기간동안 선교사님과 늘 좋은일이 있을거라 외치곤했는데 정말 주안에서 좋은 일 되었습니다.

찬양팀과 청년합창단이 주님의교회 20플러스 청년부에 있다. 매주 예배를 인도하는 새벽이슬 찬양팀이 청년부의 자랑이다. 박창준 간사가 이끌고 있는 찬양팀은 매주 토요일 수고로운 연습을 통해 주일예배를 준비한다. 1시30

분부터 2시까지 이루어지는 젊은이찬양시간 한번 와보시죠 참 좋습니다. 찬양으로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20플러스에서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다. 청년합창단이다. 평소에 찬양을 좋아하고 달란트를 가진 청년들이 4부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지휘자 김명이 자매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피드백과 여러 질문해주시는 팬들로 인해 자발적으로 생긴 청년합창단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청년멘토가 주님의교회 20플러스는 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신앙을 도울 수 있을까 현 부장님들과 담당권사님들의 아이디어로 생겨난 제도입니다. 현재보다 더 긴밀하게 청년들의 인생과 신앙 전반적인 영역에서 선한영향력을 미칠 청년멘토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5분이 자원하여 매주 넷째주에 함께 청년예배를 드리고 예배후 겨자씨모임에 함께하면서 중보기도자로 우선 목표를 두고 출발하였습니다. 청년멘토를 통해 20대 청년들을 위한 기도의 물결은 더욱 일어날것입니다.

싱글매칭학교와 결혼예비학교가 주님의교회 젊은이 공동체에 있다. 싱글매칭학교는 “목사님 결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안되요” 라고 대답하는 몇몇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당목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맴돌면서 급기야 열매로 이어진 사역이다.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을 모아만 놓아도 사랑과 결혼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6월 4기에는 15쌍이 참여하여 4주간 과정을 마치고나서 7쌍이 매칭되어 한달동안 자신이 선택하여 연결된 파트너와 사귀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그중 한 쌍은 곧 아름다운 소식이 올 예정이다. 이번10월에도 5기가 진행되는데 결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결혼을 위한 배우자 만남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비부부가 결혼앞두고 영적혼수감을 준비하는 결혼예비학교 사역입니다. 결혼생활의 시행착오를 지혜롭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결혼설계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있게 될 결혼예비학교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커플여러분! 기도하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사역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께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역을 새가족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팀장을 중심으로 양육과 정착을 위해 4주간과정을 주차별로 마치면 새가족 등반식을 통해 기존 겨자씨로 배정됩니다.

